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과 박탈된 애도: 현상학적 연구*

고 효 경¹⁾

박 주 영²⁾

강 영 신^{3)†}

¹⁾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졸업

²⁾광주대학교 심리학과 / 조교수

³⁾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성매매경험여성이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마주하는 상실과 그에 따른 애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내적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매매경험여성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80개의 핵심 중심의미, 28개의 주제, 7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대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매매 진입과 지속 요인’, ‘다양한 성매매 업종에서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림’, ‘상실의 유형’,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 ‘박탈된 애도 과정’,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상실의 유형, 애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매매경험여성들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의 영향으로 인해 박탈된 애도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 극복과 정상적인 애도 과정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매매경험여성, 상실, 낙인, 박탈된 애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고효경(2020)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과 박탈된 애도: 현상학적 연구’의 일부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사회과학대학 260

Tel: 062-530-2652, E-mail: lavieenrose@jnu.ac.kr

성매매경험여성들은 우울, 불안, 해리, 신체화, 약물 남용, 성적 역기능, 공격성, 반복적인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등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보고한다(Burnette et al., 2008; Gilchrist, Gruer, & Atkinson, 2005; Ross, Farley, & Schwartz, 2004; Roxburgh, Degenhardt, & Copeland, 2006).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전 세계에 걸쳐 성매매경험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로서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주요 주제이기도 했다(e.g., 김현선, 2002; 안혜영, 오수성, 한규석, 2012; Farley et al., 2004; Freed, 2004; Roxburgh et al., 2006).

더불어 성매매경험이 없는 여성군에 비해 성매매경험이 있는 여성군에서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Gilchrist et al., 2005; Hong, Li, Fang, & Zhao, 2007).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1)에서 실시된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경험여성 405명 중 77%가 자살사고를 보고했고, 자살사고를 보고했던 응답자들 중 68%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매매경험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고, 실제 진행된 국내외 연구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리학 분야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만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방식이 없는 것처럼(Williamson, 2005), 장기간의 반복적인 폭력 경험과 성매매라는 특수한 성적 착취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비단 앞서 언급한 정신건강을 잃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 및 착

취 경험 속에서 성매매경험여성들은 신체적 손상, 추상적 상실 등과 같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Freed, 2004).

상실(loss)이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대상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가치 있는 질(quality)이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상태를 뜻한다(Carlson & Blackwell, 1978). 상실은 대개 중요한 사람의 죽음과 같은 사별로 간주되기 쉽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상실의 범주에는 죽음과 관련된 상실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되지 않은 관계의 상실과 물리적 및 심리적·추상적 상실과 같은 비죽음 상실(non-death loss) 또한 포함된다(Sofka, 1996). 비죽음 상실의 예로는 신체적 장애 및 손상, 경제적 손실, 역할의 상실, 대인관계의 단절 등 소유물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관계의 상실, 정체성이나 순수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의 상실, 은퇴나 꿈, 계획을 포기하는 경험 등과 같이 추상적인 상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Ryckoff & Perlesz, 2001; Sofka, 1996). 따라서 상실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상실,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실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매매경험여성들이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실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경험여성들은 성매매현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는 죽음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김영숙, 이근무, 2008), 다양한 비죽음 상실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경험여성들은 성매매현장에서의 성적 및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을 상실했으며(김혜경, 2016; 이지민, 홍창희, 2008; Burnette et al., 2008; Cohan et al., 2005; Farley et al., 2004;

Mitchell, 2018; Young, Boyd, & Hubbell, 2000), 앞서 언급되었던 자살이나 PTSD와 같은 심리적 증상들 외에도 수치심, 절망감, 무력감, 자기비난, 자기개념의 손상과 같은 심리적 건강을 상실하기도 한다(김혜경, 2016; Freed, 2004; Hallgrímsdóttir, Phillips, Benoit, & Walby, 2008; Keshet & Gilboa-Schechtman, 2017; Mitchell, 2018; Wilson & Butler, 2014). 특히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의 상실은 탈성매매 이후에도 지속되며, 이는 성매매가 아닌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안정적인 삶의 과정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김자영, 양정빈, 2013; 장승진, 2013; Crawford & Kaufman, 2008; Wilson & Butler, 2014). 또한 성매매경험여성들은 성매매경험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해 가족에 의해 차별을 받음으로써 가족의 상실과 같은 관계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며(김혜경, 2016; Mitchell, 2018; Sallmann, 2010), 자유, 안전, 순수성, 처녀성,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상실은 물론, 미래가 없어지는 듯 한 추상적 상실을 경험한다(Freed, 2004).

애도(grief)는 상실 이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사랑하는 대상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강렬하고 복잡한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Burnett, Middleton, Raphael, & Martinek, 1997). 특히 애도의 과정에서는 상실로 인한 반응에 직면하고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Pomeroy & Garcia, 2008/2019). 하지만 성매매경험여성들은 낙인과 관련이 높은 대상(Sallmann, 2010)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상실을 경험한 이들과는 상실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성매매경험여성들이

더럽고, 부도덕하며, 부적절한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Vijayakumar, Chacko, & Panchanadeswaran, 2015). 국내의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정미래, 2010)에서는 여성들의 108명 중 59.3%가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Hong 등(2010)의 연구에서 310명의 성매매경험여성 중 80%가 중간 수준 이상의 자기낙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낙인으로 인해 성매매경험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자기혐오감, 오염감에 시달리며, 이는 탈성매매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Farley, 2004). 결국 이러한 낙인의 영향으로 인해 성매매경험여성들은 그들의 과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매일의 삶의 특징이 된다(Jackson, Bennett, & Sowinski, 2007; Sallmann, 2010).

상실이 낙인과 관련되어 개인이 이러한 낙인을 지각했을 때, 상실을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없고, 자신의 삶 속으로 상실을 동화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이는 결국 애도 곤란(complicated grief)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Houck, 2007; Oexle, Feigelman, & Sheehan, 2018). 낙인과 비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연관성을 확인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박탈된 애도(disenfranchised grief)’라고 칭하였다.(e.g., Feigelman, Gorman, & Jordan, 2009; Gökler, Yalçınay, & Yiğit, 2017; Houck, 2007). 박탈된 애도란 상실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애도를 말한다

(Doka, 1999). 다시 말해, 박탈된 애도는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실로 인해 애도 과정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로서, 낙인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Habarth et al., 2017; Worden, 2008). 박탈된 애도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낙인과 관련된 개인들(e.g., 자살생존자, HIV 감염인, 동성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Corr, 1999; Curtin & Garrison, 2018; Oexle et al., 2018). 성매매경험여성들 역시 이들에게 가해진 성매매경험의 피해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성매매경험의 피해나 상실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상실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정미례, 2010; Farley, 2004) 상실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회적인 낙인의 영향을 받기 쉬운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에게 상실이 발생했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실이 인식되지 못하는 자체가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애도 과정에 진입할 수조차 없는 애도 박탈을 가중시킨다.

이처럼 성매매경험여성의 죽음 상실 및 비죽음 상실은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애도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상실 이후의 과정에 어떤 상담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연구들 중에서는 성매매경험여성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일부 있지만, 주로 PTSD(김수지, 2013; 김현선, 2002; 안혜영 등, 2012), 불안 및 우울(김자영, 양정빈, 2013), 자살(이나경, 2010; 장승진, 2013) 등으로 그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더불어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

구방법의 접근을 취하는 연구들 중, 성매매 동료의 죽음 상실(김영숙, 이근무, 2008), 가족 상실(구태희, 송다영, 2012; 김혜경, 2016), 정체성 상실(김혜경, 2016)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지만, 탈성매매 과정의 전반을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실과 심리적 애도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매매현장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성매매경험여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실을 확인하고, 상실 이후의 애도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애도 과정에 있어 낙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 경험과 상실 이후의 애도 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애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호 요인들과 위험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심리적 개입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상실 경험과 애도 과정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경험여성들이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상실했다고 지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상실에 따른 애도 과정은 어떠한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점은 무엇인가? 셋째,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설계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상실과 그 이후의 애도 과정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관측되기 어

려운 개인의 내적 경험이며,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가 없어 설문 조사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성매매경험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양적 연구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특히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실과 애도 과정에 대해 확인된 바가 거의 없기에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도 개인의 경험을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론(Polkinghorne, 1984/2001)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한다(Creswell, 2013/2015). 현상은 단일한 개념 또는 아이디어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현상을 온전히 경험하였고 생생한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게는 3~4명, 많게는 10~15명으로 연구참여자의 규모가 다양하다(Dukes, 1984; Polkinghorne, 1984/2001).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를 위한 표본의 적절성을 위해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목적 표집을 활용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Seidman, 2006/2009). 우선적으로, 성매매경험에서 비롯된 상실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연구참여자는 성매매경험 당시는 물론 탈성매매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실에 대해 통합적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했다. 한편, 상실 경험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적응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며(Freeman, 2005/2019),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상실 경험에 대한 저마다의 애도 과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이혜지, 강영신, 2020), 본 연구에서는 탈성매매 이후의 기간과는 관계없이 탈성매매 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 면담을 통해 외상과 관련된 성매매경험을 보고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불편감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상실 경험에 대한 충분한 진술이 가능하며, 상실 경험에 지속적으로 마주해 본 경험이 있는 탈성매매 여성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첫째, 만 19세 이상의 현재 기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활지원센터를 1년 이상 이용한 자이어야 한다. 성매매경험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기관은 대체로 성매매피해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및 의료적 지원, 거주지 제공 등의 위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상담소나 쉼터와 달리, 자활지원센터는 이러한 위급 상황들이 일차적으로 수습이 될 경우 이용하는 곳으로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들은 상담소나 쉼터 이용자에게 비해 더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또한 자활지원센터 내에서는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리 상담 및 집단 상담, 성매매경험을 풀어낸 글쓰기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의 전시 활동 등이 진행된다. 자활지원센터의 사업이 1년 단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참여자는 1년 이상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 19세 이상의 성매매경험여성의 자조모임 활동가이어야 한다. 그 이유로, 성매매경험여성의 자조모임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며, 이들은 성매매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고 지지하는 지속적인 모임 활동은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토크콘서트, 작품 전시 활동 등을 통해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한 상실 경험을 대중에게 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활지원센터를 1년 이상 이용한 자 또는 성매매경험여성 자조모임 활동가들은 자신의 상실 경험에 마주하고 이를 이야기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로 적합하다. 하지만 자활지원센터는 탈성매매를 한 여성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기관의 연락처,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성매매방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교류가 있었던 자활지원센터 및 자조모임 대표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모집 문건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해 의뢰하여 한 달 동안 연구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 총 6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 중 1명의 연구참여자가 임신 상태에 있어 과거 성매매경험으로 인한 상실을 반복적으로 상기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시켰기에, 본 연구에는 최종적으로 5명의 성매매경험여성이 참여하였다(표 1 참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직

접 대면하여 장시간 자신들의 경험을 자세하게 진술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관련한 윤리적인 주제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정규심의를 통해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모집 당시, 상실 및 상실 이후의 과정에 대한 심층 면담이 이루어짐을 명시하였으며, 면담 중 과거 성매매경험을 반복적으로 마주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상실 경험과 마주해야 하는 위험성, 위험성에 대한 대처방식 등을 연구 참여에 앞서 설명하였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받았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특히 유념하였다. 면담 장소는 사방이 차단된 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외에는 타인이 없으며 연구참여자가 편안하다고 동의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자택, 룸카페, 연구자 소속기관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경우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 안내와 더불어, 지역 사회 내의 공공기관에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면담 중에는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관찰해 쉬는 시간을 가졌고,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심리적 불편감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참여자들 모두 불편감이 없었다는 보고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거나 자신의 연구 참여로 인해 대중들이 성매매경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면담이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후에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심리적 불편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였으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연구 참여가 완료된 이후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전달하였다.

자료 수집

본격적인 개별 심층 면담 전에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면담이 시작되면서 사전

에 준비해 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성매매로 인한 상실 경험, 상실 경험 이후의 애도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상실과 애도, 애도과정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감정을 털어내고 되찾는 과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제한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형태의 질문들을 건넌 이후, 연구참여자 진술의 흐름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이어나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

연구참여자 참여자 정보	A	B	C	D	E
연령(만)	39	25	42	35	28
결혼 여부	기혼	미혼	이혼	기혼	미혼
자녀유무	없음	없음	없음	있음 (1명)	없음
최초 성매매경험 당시의 연령 (만)	13	16	13	15	15
최초 성매매경험 당시의 학력	중졸	중졸	초졸	초졸	중졸
현재 최종 학력	대학 재학	대학 재학	초졸	대학 재학	대졸 이상
경험한 성매매 유형	유흥주점(단란주점), 티켓다방, 보도방, 숙박업소 (여관·여인숙), 해외 성매매, 기지촌, 전화방	유흥주점(단란주점), 보도방, 인터넷·스마트폰 채팅, 오피스텔, 유사성교행위 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보도방, 안마시술소, 숙박업소(여관·여인숙), 기지촌, 집결지	유흥주점(단란주점), 티켓다방, 보도방, 안마시술소, 집결지	유흥주점(단란주점), 티켓다방, 보도방, 인터넷·스마트폰 채팅, 오피스텔, 유사성교행위 업소
총 성매매경험 기간	14년	6년 6개월	27년	11년	7년
탈성매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12년	3년 6개월	2년 3개월	10년	2년 6개월
자조모임 참여기간	3년 6개월	3년 6개월	참여하지 않음	3년 6개월	1개월

갔다.

면담 과정 중, 상실 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명명해 진술하기를 어려워하여 Sofka(1996)의 상실경험체 크리스트를 제시하였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졌다. 자료의 충분함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 진행 과정에서 주요 질문마다 더 보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보고의 흐름에 따라 충분한 시간 동안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화통화를 이용하였다. 면담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담에서 보고된 내용은 앞선 연구참여자들의 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였고, 추가 면담과 전화통화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어 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자료 분석 및 연구의 타당성

현상학적 연구의 과정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과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김분한 등 1999; Beck, Keddy, & Cohen, 1994). Giorgi의 자료분석 4단계(Giorgi, 1985/2004; Giorgi, 1997; Polkinghorne, 1984/2001)를 바탕으로, 수집된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녹취된 진술 그대로를 직접 축어록으로 옮겨 작성하였다. 이후 모든 사례의 축어록 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 면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진술 중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부분에서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 의미단위들을 공통된 주제로 분류해 핵심 중심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주제, 대주제로 묶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였다. 먼저 면접자의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한 선이해를 판단중지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위해 면담을 위한 질문지 생성에서부터 면담 과정 등에서 상담심리학 박사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사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다수의 자료원, 다수의 연구자, 다수의 이론이나 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Creswell, 2013/2015; Denzin, 1970) 본 연구에서는 연구조사자의 삼각검증법을 적용해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 분석전문가 2인(다수의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2인)이 참여하였다. 연구자와 분석전문가들까지 총 3인은 개별적으로 축어록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단위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3인이 추출한 의미단위 중, 어떤 의미단위가 연구참여자 진술 본연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평정하면서, 3인의 의미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3인의 의미단위를 종합해 가장 적절한 것을 재차 추출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 의미단위들을 공통된 주제로 분류해 핵심 중심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주제,

대주제로 묶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면담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인법은 연구 결과 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음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13/2015). 이때 연구자는 보통 1명~3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분석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지, 연구자의 표현은 정확한지, 연구 결과가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바의 의미를 명확하게 담아내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2인에게 의미단위에 자신들의 진술의 의미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연구자의 표현 및 기술이 정확하고 공정한지와 함께, 핵심 중심 의미, 주제, 대주제가 타당함을 검토받았다. 원고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1인을 제외한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논문 원고를 배포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었다.

결 과

수집된 질적 자료의 최종 분석 결과, 455개의 의미단위를 발견하였고, 의미단위 중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을 묶어 80개의 핵심 중심의미, 28개의 주제, 7개의 대주제를 도출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대주제 1: 성매매 진입과 지속 요인

성매매경험여성들이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상실했다고 지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 즉 성매매에 진입하게 되는,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주제 1: 성매매 진입 이유

모든 참여자들은 가정 내에 머무르기가 힘들었던 가정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이는 가출로 이어졌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성매매를 함께 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이 존재했다.

엄마가 아빠 폭력 때문에 도망을 갔고. 오빠 둘 있는 거랑 빨빨이 헤어졌고. ... (중략) ... 돈 더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소개쟁이(성매매 알선업자) 말에 감시다 해서 갔는데 그런 술집이었던 거야. (참여자 A)

집에는 가기 싫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 (중략) ... 친구 한 명이 먼저 일을 해서 제가 그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참여자 B)

7살 때, 새아버지네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살았는데. 어릴 때 되게 눈치를 많이 봤어. 그 집 들어가고 몇 달 안 있다가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새아버지랑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 엄마가 새아버지한테 그 대나무 베개 목

표 2.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과 애도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핵심 중심의미	주제	대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한 가족사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기가 힘들었음 • 부모의 과잉통제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답답했음 • 숙식해결과 생활비 때문에 성매매를 시작함 • 친구를 통해 성매매를 알게 되어 시작함 • 속아서 성매매를 시작함 	성매매 진입 이유	성매매 진입과 지속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로 가족을 지원함 • 성매매 업소만이 지지 자원이 됨 • 부당한 성매매 수익 구조로 인해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려웠음 • 돈에 대한 현실적 개념이 없어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려웠음 	성매매 지속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때부터 시작한 성매매가 오래 지속됨 • 전국의 다양한 성매매 업종을 경험함 	오랜 기간 다양한 성매매 업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폭력을 당함 • 성적 학대를 당함 • 언어적 폭력을 당함 • 성매매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어 두려움 • 생명의 위협에 시달림 • 협박을 당함 • 고된 노동에 시달림 •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음 • 업주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여 자신을 고립시킴 • 업주에 의한 조종과 감시에 시달림 	업소에서의 다양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됨	다양한 성매매 업종에서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와 폭력에 익숙해짐 	학대와 폭력에 익숙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 • 갈취를 당함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어 궁핍한 생활이 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를 잃음 • 친구관계를 잃음 • 연인관계를 잃음 • 사회적 지지가 없음 •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됨 	다양한 관계들과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선택, 권리, 욕구 표현이 불가능했음 • 고립과 단절된 생활을 함 • 업소 내에서 사생활이 없었음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	상실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e.g., 위장장애, 골반염, 치아 손상 등)을 잃음 	신체적 건강의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건강(e.g., 자살사고, 우울, 자기혐오 등)을 잃음 	정신적 건강의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범한 학창시절을 경험하지 못함 • 사소한 일상적 경험을 하지 못함 • 인생의 특정 시간을 잃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경험과 시간을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과 목표를 잃음 • 진학 기회를 잃음 • 경력을 계발할 기회를 잃음 	<p>미래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꿈과 목표를 상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위를 잃음 	<p>사회적 지위를 잃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감이 없어짐 • 나의 행적과 존재를 지워야 함 • 자존감을 잃음 	<p>개인정체성을 잃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를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소망을 포기함 • 불임과 유산으로 인해 가정을 이루고자하는 희망을 잃음 	<p>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잃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에 대한 후회, 자책 • 상실에 대한 슬픔 • 자신에 대한 안쓰러움 • 행복감을 느끼지 못함 • 상실에 대한 양가감정 	<p>상실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양가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에 대해 부인하기 • 성매매경험에 대해 부인하기 • 상실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 •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p>상실에 대한 인지적 대처방식</p>	<p>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시도 • 업주들을 벌하기 • 상실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단념하기 •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 음주, 쇼핑, 폭식, 유튜브 채팅하기 	<p>상실에 대한 행동적 대처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실에 대해 나누지 못함 • 사회적 낙인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함 	<p>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애도 과정의 박탈</p>	<p>박탈된 애도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낙인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함 • 자기낙인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버림 	<p>자기낙인으로 인한 애도 과정의 박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감과 외로움에 시달림 	<p>박탈된 애도 과정의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상실 극복에 도움을 줌 • 자조모임이 상실 극복에 도움을 줌 • 상담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 성매매방지기관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 편견 없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 반려동물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p>지지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p>	<p>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가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 자서전 쓰기를 통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p>경험 공유가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가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p>목표 형성이 도움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사람에게도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 이해받을 수 없음 	<p>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p>	<p>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경험을 공유한 것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성매매경험이 없는 상담원이 도움이 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을 공감받지 못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에 경험을 공유한 것이 재트라우마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을 공유한 것이 재트라우마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성매매 후에도 선택의 제한이 있어 삶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됨 • 짧은 지원 기간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선택과 충분한 지원이 없어 도움이 되지 못함

침, 그걸로 머리를 맞아서 빵꾸가 났거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한 건데. 가출을 하다보니까 잘 데는 필요하고 ... (중략) ... (참여자 C)

주제 2: 성매매 지속 요인

성매매에 진입하게 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데 있어 가족적 요인이 등장한다. 또한 성매매업소는 가정 내에서 채울 수 없는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불금을 통해 빚을 지게 만들거나 성매매를 해도 업주에 의해 돈을 갈취당하는 등 성매매 특유의 환경 역시 성매매 지속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인(업주)하고 말도 안 되게 때지만, 벌어서 집에 보내줄 수 있으니까. ... (중략) ... 도망을 쉽게 못 가는 이유도 막상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거야. ... (참여자 A)

단속 맞아서 잡혀갔다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됐지. 다시 집을 갔는데 못 있겠는 거야. 시선은 더 좋지가 않지. ... (중략) ... 그때 업주가 그래도 잘 해줬거든. 그리고 언니들이 다 이빠라 해주거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

발로 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엄마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참여자 C)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그러면 사람이 또 해이 해진다, 그럼 또 빚을 지게 돼. ... (중략) ... 이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번만큼 더 쓰게 되는 거 있잖아. (참여자 D)

대주제 2: 다양한 성매매 업종에서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림

다양한 성매매 업종에서 경험해야 했던 폭력과 학대는 참여자들의 상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제 1: 오랜 기간 다양한 성매매 업종 경험

참여자들은 10대 중후반이란 미성년의 나이로 성매매에 노출되어 전국에 위치한 다양한 성매매 업종을 경험했으며,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약 30여 년 동안 성매매를 지속해왔다.

십대 때부터 스물여덟 초반에 탈업(탈성매매)을 했으니까 거의 십대, 이십대를 성매매 쪽에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참여자 A)

처음에 유입된 게 16살에 노래방이었는데. ... (중략) ... 제가 제주도 빼고는 사실 그런 일을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서... (참여자 E)

주제 2: 업소에서의 다양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됨

참여자들은 면담 중 업소에서 행해지는 폭력과 학대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폭력적 상황은 특수하다기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었다.

(업소 안에서) 폭력에 개방돼 있고. ... (중략) ... 거기서는 갑자기 가시내 하나 안 보이면 어디 팔려갔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 (중략) ... 어떻게 보면 기계야. (참여자 A)

노래방이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마이크를 던지는 거예요. 저 마이크로 맞으면 죽겠구나 싶었어요. 계속 욕하고. ... (중략) ... (손님이) 협박을 한 거예요. 집 어딘지 안다, 안 만나주면 네 변호랑 ... 다 유폐해버린다. ... (중략) ... (업주가) 맨날 욕하고. ... (중략) ... (업주가) 다 말했어요. 아는 언니들, 오빠들한테도, 제 나이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참여자 B)

제일 무서운 손님들이 술 먹고 돌변하는 손님이지. 정말 거의 협박.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 (중략) ... 최악의 업주는 무심한 척 하면서, 누구 하나 딱 심어놓고 조종하는 스타일. ... (중략) ... 쓸 수가 없으니까. 거의 내가 내 몸을 학대를 했지. (참여자 D)

주제 3: 폭력과 학대에 익숙해짐

반복되는 폭력과 학대로 인해 참여자들은 이를 심리적으로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업주나 성매수 남성의 폭력이나 부당한 요구에도 제대로 된 대항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니야. 세뇌라고 하지 왜 업주들의. 업주가 때리면 때리는 가 보다, 욕 하면 욕 하나 보다. 반항할 생각을 못 했어. ... (중략) ... 사람이 아픈 그런 게 증상들이 오래되면 무더진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 A)

지출해 달라고(내가 업소에서 번 돈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업주가) 눈치 주고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는 거야. (참여자 C)

(손님들이) 때리면 또 돈을 주니까. 그냥 처음에는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멍 안 들게 요령 있게 때리고 돈 주고 가라... 나를 잃는 거죠. ... (참여자 E)

주제 4: 일을 해도 돈을 벌수 없어 궁핍한 생활이 지속됨

업주와 성매수 남성들의 부당한 착취와 갈취가 반복되는 성매매 구조 속에서 참여자들은 성매매를 했음에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탈성매매 이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래 계산 방식이 일반 계산 방식이었다고 하면 많이 벌었겠지 나도. 그런데

십몇 년을 일하면서 빚만 졌으니까. ...
(참여자 A)

나는 그 업소에서 돈 벌은 게 없어서
빚 더 떠안고, 다른 업소로 옮겼는데. 내
가 오천만원, 육천만원 벌었다고 업주들
이 내 이름으로 소득 신고 해버려. 나는
지금 그 세금도 못 내고 있어. (참여자 C)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다들한테 짐이
예요. 이모가 우리 집에 오면서 쓰레기봉
투를 안 사가지고 왔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와 이랬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
게 사오지? 이것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
요. (참여자 E)

대주제 3: 상실의 유형

대주제 3에는 성매매경험여성들이 성매매
경험으로 인해 상실했다고 지각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참여자들
은 성매매경험 당시 다양한 유형의 상실이 발
생했으며, 탈성매매 이후에도 상실 경험이 지
속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주제 1: 다양한 관계들과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

참여자들은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의 다양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
를 상실했다.

거기는 휴대폰도 없어. 가족한테 연락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 (중략) ...
그렇게 단짜이었는데도, ... (중략) ... 그
렇게 친했던 애들도 술집에서 일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상한 여자로 볼 때, 타락
한 애로 볼 때, 그때 많이 아팠던 거 같
애 마음이. (참여자 A)

막상 탈성매매 하고 집에 가 있는데,
엄마가 남보다도 못해... 그때(탈성매매
후) 처음 엄마한테 갈 때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갔는데, ... (중략) ... 엄마 재산 노
리고 집에 왔나 너 안 준다고. 그다음에
엄마랑 가족 관계 뭐 어떤 걸 할 수 있
어 못해. ... (중략) ... 지금은 내가 전화
하면 안 받아. 엄마인데 전화를 안 받아.
... (중략) ... 탈성매매를 하고 나니까 대
인관계가 없어. 내가 죽게 되면 내 장례
식장에 올 사람이 없어. 상담소 선생님들
밖에. 가족도 없고. (참여자 C)

내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건 가족...
(눈물)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게,
업주들이나 사채쟁이들이 집으로 찾아가
버리는 거야. ... (중략) ... 어렸을 때부터
같은 일(성매매)을 하면서 지냈던 중학교
친구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면
서 개네들이 나를 멀리하는 거야. 거부하
는 거지. ... (중략) ...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일을 한 걸 알
게 됐어.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던 사람이
알고 나니까 바뀌더라고. 말을 막 하는
거지. 오늘은 나가서 얼마 벌었냐? 이런
식으로. (참여자 D)

주제 2: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

참여자들은 업소 내에서 비롯된 학대와 폭
력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업
주나 성구매 남성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으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었음에도 이를 요구할 수 없는 등 개인적인 욕구나 권리, 선택의 표현 등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업소 내에서의 감시와 감금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무 감정 없는, 내 의견도 낼 수도 없고. 내 생각이 없었다는 거. 미용실 가서 내 머리스타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이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쉬고 싶다면 쉬고 싶다고 말도 못했던. ... (중략) ... 왜 가게에서 슈퍼도 갈 수 있고, 시장도 갈 수 있고 하는 데, 왜 감금당해야 되지?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 거기는 티브이도 없어. 라디오도 못 들어. 신문도 못 봐. 휴대폰도 없어. 인간관계 끊기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는 그냥 섬에 오지야 오지.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냥 바보가 된 거 같애. (참여자 A)

주제 3: 신체적 건강의 상실

참여자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업주와 성구매 남성들에 의해 행해지는 반복적인 폭력과 학대로 점차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종류로는 위장장애, 지방간, 통풍, 고지혈증, 골반염, 두통, 신경통, 신장 및 치아 손상, 면역력 저하 등으로 다양했으며, 탈성매매를 한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한 짝에 삼십 병을 하루에 일곱 짝, 여덟 짝을 매일 마신다고. 술을 많이 먹고 새벽에 피를 토했는데. ... (중략) ... 의사

말로는 위가 터질 수도 있다고, 병원 측에서 강제입원을 시켰는데, 삼 일 만에 (업주가) 강제퇴원을 시킨 거야. ... (중략) ... 거기(업소)는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 주사이모 불러서 맞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치고는 간수치도 높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 맞아서. (참여자 A)

내 몸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지. ... (중략) ... (양쪽 나팔관의혹 제거)수술을 하고 입원 일주일 하고 퇴원해서 또 바로 일을 했지. ... (중략) ... 이 녹내장(왼쪽 눈 실명)도 그 (업소) 조명. ... (중략) ... 지금 오른쪽 신장 혹도 수술해야 되고, 통풍, 고지혈증, 지방간은 어마어마하고, 간수치는 정상 사람들의 한 열 배는 높다고 하니까. 신경통 때문에 입원도 하고, 두통약은 달고 살고.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병원 약만 한 40알. (참여자 C)

건강도 많이 잃었고. 희귀질환이 있는 줄 일할 때는 잘 몰랐죠. ... (중략) ... 그때는 빛도 있고 실 틈이 없었으니까 몸이 이제 굵아있죠. ... (중략) ... 일을 쉬면서 골반염이든 오히려 그거 할 때보다 더 병이 막... 계속 건강이 바닥나고 있죠. (참여자 E)

주제 4: 정신적 건강의 상실

성매매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의 상실은 신체적 건강 상실만큼이나 심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해, 자기혐오, 우울, 트라우마, 해리,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

한 정신적 건강의 상실이 확인되었다.

(성매매 당시) 자살 시도 다섯 번 넘게 했었고. (참여자 A)

당연히... 저를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B)

일(성매매) 끝나고서는 술이 취했는데도 별에 별 핑계를 대서 술을 먹겠지. 그냥 온정신으로 있기 싫었던 것 같아. 우울증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우울증이라고 몰랐던 것 같고. ... (중략) ... 정신과를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게 다 트라우마래. ... (중략) ... 지금 집이 4층이잖아. 한 번씩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손목을 그어서는 못 죽을 것 같다 뛰어내릴까...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놔, 설거지 하다가 식칼로 손목 긋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제일 무서워. 내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겁이나... 수면제를 먹으면 그때 좀 안도감이 들어. 왜냐면 눈을 안 뜨고 있어도 되니까. (참여자 C)

집에서 자해를 하거나 이런 적도 있고. ... (중략) ... 트라우마가 생겼죠. 남성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힘들고. ... (중략) ... 나는 지금도 별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구차하게... ... (중략) ... (심리상담사가) 해리를 잡아냈어요. 내 자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예 분리되는 게 있대요. (참여자 E)

주제 5: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경험과 시간을 잃음

참여자들은 성매매로 인해 일상의 사소한 경험들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언급하였다.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랑 논다거나, 학교생활이 없었던 거지. ... (중략) ... 저 사람은 오늘 출근하네,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 (중략) ... 그런 남들이 하는 사소한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었어. ... (중략) ... 내가 이런 일을 한 걸 모르는 애들(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개네들은 수많은 추억들이 그렇게 많아. 내가 업소에 안 갔으면 학교생활 얘기하고, 수학여행 얘기하고, 졸업식 어땠고, 급식이 어땠고, 다 이야기 할 텐데 나는 그것도 없어. 스무 살 때는 성년의 날 꽃 받았네, 향수 받았네, 남자친구 몇 명 사귀었네, 이런 놈 저런 놈도 있었네, 나는 그게 통으로 없잖아. 개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참여자 A)

그때 만약에 (성매매) 안 했으면 진짜 대학교에 갔을 텐데, 아쉬워요. 친구들이랑 똑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놀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지를 못 했잖아요. ... (중략) ... 내 나이를 잃어버린 거 같기는 해요. 17살부터 23살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진 거 같아요. (참여자 B)

그걸 잃어버렸죠. 나를 받아줄 데는 더 이상 여기(성매매)밖에 없는 건가 이런 거? 이런 상실감. (참여자 E)

주제 6: 미래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꿈과 목표를 상실함

참여자들은 성매매를 하면서 진학의 기회나 경력을 계발할 기회를 잃으면서 탈성매매 후에도 새로운 진로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막상 세상에 뛰어드니까 힘들잖아. 배운 거 없지. 학력도 안 되지. ... (중략) ... 아, 이런 일밖에 못 하는구나 내가. (참여자 A)

꿈이랑 목표는 애당초 없었던 거 같애. (참여자 C)

시간을 잃어버렸죠. 경력도 잃어버리고. ... (중략) ...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직함도 달아봤으니까 좀 더 (탈성매매 후) 커리어우먼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희망을 버렸죠. 꿈을 잃었죠. 지금도 00단체에서 일을 하지만 내 꿈에는 멀죠. (참여자 E)

주제 7: 사회적 지위를 잃음

성매매와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참여자 E는 계속해서 쌓이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전업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성매매랑 일반 일이랑 같이 했을 때는 나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 지위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입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제 8: 개인정체성을 잃음

참여자들은 성매매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에 노출됐으며, 성매매 당시의 선불금으로 인해 탈성매매 이후에도 자신의 행적이나 흔적을 지우는 생활을 지속했다.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자신이 없었지. 내 인생이 없었다는 거. 그냥 꼭두각시. 주인이 줄 하나 연결해 놓고 인형 놀이 하는 거 있잖아. 생각조차 없어져. (참여자 A)

내가 내가 아니야. 내가 없어. 나란 사람은 없는 것 같애. (참여자 C)

지금 탈업한 지 십년이 돼 가는데, 십년 동안 내 앞으로 핸드폰을 하거나 그런 걸 아무것도 못 했었어. ... (중략) ... 하고 나서 뭔가 오지 않을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린 거지. (참여자 D)

주제 9: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잃음

참여자들은 성매매를 경험하면서 혹은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거나 불임 상태에 처하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잃어버렸다.

나만 좋아해주는 남자 만나서 우리끼

리 알콩달콩 살고 싶은 그런 가정. 꿈은 그거 하나였어. 그런데 그 업소 생활하면서 그 꿈이 없어진 거지. (참여자 A)

병원에서 불임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그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오직 하나였어. 내가 성매매를 하면서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이런 거까지 다... 내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참여자 D)

유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다른 애기를 보는 것도 찻찻스럽고... 아직까지도 낱짜를 기억해요 0000년 0월 00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매개체 같은 거였어요.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었죠. (참여자 E)

대주제 4: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

대주제 4에는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상실에 따른 애도 과정이 드러나 있다.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상실로 인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참여자마다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인지적 및 행동적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주제 1: 상실에 대한 다양한 감정과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성매매로 인한 상실에 대한 슬픔이나 성매매를 선택한 자신에 대한 후회, 자책 등의 감정과 함께, 개인마다 성매매에 대한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상실을 생각하면 슬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던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야.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런 데 있었을까... (중략) ... 살아가면서 사람이 느껴야 되는 기본적인 행복감이 없어. ... (중략) ... 신랑도 내가 성매매 이쪽(반성매매 운동)에서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성매매 했다고는 말을 못 해. 이중적인 생각이잖아. 그게 너무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참여자 A)

썸 짜증나요, 제 선택이. 내가 안 그랬으면... 근데 돈 없으면 또 계속 생각나고. 진짜 답답한 게 아, 그래 돈 없어도 살 수 있잖아 하면서도,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서 진짜 너무 이중적인 거 같아요, 제가. (참여자 B)

제일 후회되는 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랬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 (중략) ... (탈성매매 이후 유흥 지역에서 성매매여성들을 마주치면) 두 가지의 잣대를 놓고 보게 되더라고. 저 사람들 지옥에 사네 얼마나 벗어나고 싶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돈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겠지. (참여자 D)

주제 2: 상실에 대한 인지적 대처방식

참여자들은 성매매경험이나 상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상실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것 등과 같은 인지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고 싶은 거지. 기간 통째가 내 머릿속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 (중략) ... 그런 일 한 여자가 아니다, 그런 경험을 한 여자가 아니다 그런 거. (참여자 A)

(상실의) 원인은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 선택 안 했으면 안 그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참여자 B)

지금 상실감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 같애.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을 하면 내 스스로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애. ... (중략) ... 평상시 내 스스로는 맨날 최면을 걸어. 열심히 몸 팔고 있는데, 나는 당당해. (참여자 C)

자기 암시라는 책에서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하라고 그 래가지고 하고 있고요.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 E)

주제 3: 상실에 대한 행동적 대처방식

상실에 대한 행동적 대처방식 역시 나타나는데,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긍정적 행동 이외에도 자살시도, 알콜 섭취, 폭식, 쇼핑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이 주를 이루었다.

나만 없으면 되지. 그럼 이 모든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죽어버리면 누구 하나 기억을 안 할 것이고, 나를 기억 안 해준다고 해서 서글픈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 했던 거 자체도 모르는 거니까 사람들이. (참여자 A)

포기를 하잖아 그럼 속이 편해. 잃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잃은 거를 막 찾으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더 병들 거 같애. (참여자 C)

몸이 좀 덜 아파요, 술 먹으면. 기분도 좋고. 물건도 신나서 사는데 막상 사오 나면 허망해요. ... (중략) ... 몇 입 먹으면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고 미치겠는데 계속 시켜서 맛만 보고 버려요. ... (중략) ... 요즘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유튜버가 하는 얘기에 리액션하는 건데도 소통을 하잖아요. ... 인턴도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하고. (참여자 E)

대주제 5: 박탈된 애도 과정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점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낙인으로 내재화되어 자신의 상실을 스스로, 나아가 타인에게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도 과정이 차단되는 박탈된 애도 과정이 확인되었다.

주제 1: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애도 과정의 박탈

참여자들은 사회가 성매매경험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성매매경험여성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며 차별하는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실 경험에 대한 공유 과정을 박탈시켰다.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 내 아픔을 공유

해 주기보다 성매매했네 듣는 순간,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하고, 나를 창녀로 볼 것이고... 아 애 몸 파는 여자였어? 그런 인식. 그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애 (눈물). (참여자 A)

성매매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 (중략) ...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성매매해서 아프다는 데 그걸 이해해줄까요 (헛웃음). 그리고 얼마나 아파도 알면 당연히 자기 자식이... (참여자 B)

여자가 (성매매) 했다고 하면 아주 큰 일 날 일이니까. 차라리 외국 가서 살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 (참여자C)

낮에는 아가씨들끼리 사우나를 가거나 앞을 나가면, 그런 낙인이 찍혀져 있는 거야. 거기 골목이 그 골목이니까. (참여자D)

주제 2: 자기낙인으로 인한 애도 과정의 박탈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시키면서 참여자들은 자기낙인의 과정 역시 경험하고 있었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물론 심지어 자신 스스로와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낙인의 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매매경험 사실을 숨기게 만들게 되었고, 성매매경험으로 인한 상실에로의 접근과 애도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느 순간은 그거지, 내가 이런 일 한 여자인데 시집갈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어. 한 행동을 이 사람이 보고, 어 너 술집 다녔지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

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결혼조차도 생각을 안 했어. ... (중략) ... 밖을 잘 못 나갔었어. 누가 나를 알아볼까 불안감 때문. ... (중략) ... 내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온 인생. (참여자 A)

말하기 힘들었던 건 떳떳하지 않았잖아요. (참여자 B)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남자친구가) 유흥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면 편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 평생 모르길 바라야지. (참여자C)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알면 나를 더럽다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참여자 E)

주제 3: 박탈된 애도 과정의 결과

박탈된 애도 과정의 결과, 참여자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 혼자 있는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다시 업소를 갈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딱 한 번 해봤어. ... (중략) ...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진짜, 혼자 있는 게 미치겠는거야... (참여자C)

답답해서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할 사람이 없다거나. ... (중략) ... 그러면 또 혼자 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롭죠. ... (중략) ... 쫘 혼자있는 느낌이죠 언제나. (참여자 E)

대주제 6: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

대주제 6과 대주제 7을 통해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주제 1: 지지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

참여자들은 지지해주는 타인, 혹은 반려동물의 존재와 심리치료가 상실 극복에 도움이 됨을 언급하였다. 또한 성매매지원기관의 의료비, 주거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 역시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 상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조)모임 가면 나 때는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있었어 같이 공유하고, 반성매매에 대해서 같이 외치고 하면서 겁이 없어졌어. ... (중략) ...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이런 일 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아예 그런 일 안 한 애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주셔. (참여자 A)

엄마랑 (몸이) 아픈 거, 생활하면서 힘든 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고. ... (중략) ... (전국 자조모임 네트워크) 다니면서 여러 언니들을 만나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제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에 안도감... ... (중략) ... 자활 (성매매방지기관)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계속 훈련하고. 그리고 자활 프로그램 하면서 나한테 도움된 것들도 있었고. (참여자 B)

유일하게 속이 시원할 때가 한 달에

딱 두 번. 정신과 가서 얘기하고 울고. 그럼 그나마 속이 뺨 뚫려서라도 오니까. 그럼 또 2주 잘 버티자. (참여자 C)

우리 신랑 때문에 탈업을 하게 된 거야. 신랑이 다 알아봐가지고, 도둑 이사를 한 거거든. 신랑도 같이 도망자 신세가 돼 버린 거야. 서로 너무 힘들니까 많이 의지도 했고. ... (중략) ... 탈업하고 나서 사촌동생도 같이 일을 해서 무슨 상황인지 아니까 옆에서 많이 지지해주고. (남편, 동생이 없었다면) 탈업조차 생각을 못 했을 거 같애. (참여자 D)

강아지가 있으니까 돈 벌려고도 하고, 뭔가 먹기라도 하고, 먹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내가 계속 뒤로 밀리니까. 근데 강아지들은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잖아요. (참여자 E)

주제 2: 경험 공유가 도움이 됨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의 경험담이 담긴 책을 읽거나, 자신의 경험을 책에 담아냄으로써 상실 경험을 공유하는 것 역시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험 당사자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내가 오버랩 되는 거야. 너 이랬어? 나도 이런 경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책하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는 거 같애. (참여자 A)

소설 쓰면서 많이 오픈이 됐죠.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거기에 고스란히 녹여냈으니까. (참여자 E)

주제 3: 목표 형성이 도움이 됨

참여자들은 성매매경험으로 인한 상실을 발판으로 목표한 바를 추구하고 실행하면서 뿌듯함, 자랑스러움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나는 경험 있으니까 언니들(성매매경험 여성들)한테 조그마한 말 한마디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싶은 거야. 마음의 치유를 해주고 싶은. 그 생각에 상담원이 되고 싶은 거야. (참여자 A)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닐 거 같기는 해요. (참여자 B)

탈업하고 나서 검정고시도 봤고, 지금 000학과 사이버대 듣고 있으니까 뿌듯함. ... (중략) ... 대부분 탈업한 여성들은 못산다고만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참여자 D)

대주제 7: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

주제 1: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

참여자들은 가까운 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상실 경험에 대해 공유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슬픔의 감정과 함께, 탈성매매 이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받기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일반 애들하고는 탈업 이후의 일만 나

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는 숨기는 게 많은 거 같애 그래. ... (중략) ... 육십 대 되서, 칠십대 되서 내 또래 노인들하고 만나면, 넌 젊었을 때 어땠니 하면 나는 그 순간(성매매했던 기간)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었던 사람이 되니까. (눈물) 그게 되게 슬픈 거 같애. 공유할 수 없다는 거. (참여자 A)

엄마랑 대화가 안 돼. 둘이 대화할 거리가 없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 (중략) ...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해야 나도 내 문제가 어떻다고 속 터놓고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남자친구한테는 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약을 많이 먹는지도 설명을 다 못 하지. (참여자 C)

주제 2: 경험을 공감받지 못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

참여자들은 상실 경험에 대해 공유하더라도 이를 온전하게 공감받기란 어려웠다.

이 선생님은 상담원으로 오래 했으니까, 말로는 공감하는데 느끼지는 못하는구나. 상담 쌤도 일반 여성이야,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해도, 우리의 아픔을 몰라, 공감 못 해. (참여자 A)

(동생한테서) 참 인생 잘못 살았다,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냐, 그 나쁜 짓해서 돈을 대체 어디다 다 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거 별어서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래가지고 돈 없

어서 생활비도 대출받느라 힘들었고. 그거를 이야기해도 이해 못 하죠. 그건 너의 의지 문제다 그러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답답하죠. 예전에는 모르니까 저런 말 하지 이랬는데 알아도 저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참여자 E)

주제 3: 경험을 공유한 것이 재트라우마가 됨
참여자 E의 경우,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상실 경험을 공유한 것이 오히려 상실 경험을 과도하게 재경험하게 만들으로써 애도 과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자조모임 하면서 내가 그 경험을 곱씹으니까 계속 갇혀있는 게 아닐까. ... (중략) ... 그때는 순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후폭풍. 내가 그랬었지... 그러니까 계속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 하니까. (참여자 E)

주제 4: 다양한 선택과 충분한 지원이 없어 도움이 되지 않음

참여자들은 성매매경험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 삶의 선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망이나 실질적인 지원 역시 한계가 있었다.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게 삼년이잖아. 나는 그게 되게 짧다고 생각을 했어. 탈업하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기저기 아파 와. 그리고 트라우마가 그때 올 수도 있어. (참여자 A)

막상 회사를 들어갔는데, (성매매사실이 밝혀져) 내가 인격살인이라도 당해버리면 진짜 목매달아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 (중략) ... 나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 받지 않으려면 항상 선택지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탈업하지 않았을 때 내 선택권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죠. ... (중략) ... 과거에는 손도 안 벌리고 잘 살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죽을 둥 살 둥...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돌아오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계속 그 낙인감은 따라다니고... ... (중략) ... 그리고 센터 (지원기간이) 1년도 안 남았어요. 센터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안 돌아가자니 힘들고. (참여자 E)

본 연구 결과 드러난 핵심 중심의미(80개), 주제(28개), 대주제(7개)를 통해 파악된 성매매 경험여성들의 상실 경험과 애도 과정에 대한 본질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경험여성들은 다양한 성매매 업종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신체적 및 심리적 상실을 포함한 물리적, 추상적 상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으로 인해 상실 경험에 대한 자각 및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애도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애도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경험 공유, 목표의 형성은 이들의 상실 극복과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경험여성들의 다양한 상실과 상실 이후의 애도 과정을 탐색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성매매경험여성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진입과 지속 요인’, ‘다양한 성매매 업종에서 갖은 폭력과 학대에 시달림’, ‘상실의 유형’, ‘상실에 대한 애도 과정’, ‘박탈된 애도 과정’,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 총 7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상담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매매경험여성들이 성매매경험으로 인해 상실했다고 지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는데, 이에 앞서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요인으로 원가족의 해체, 재혼 가정에서의 성장, 가정의 빈곤 및 폭력, 부모의 정서적 학대 등의 가족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가정 내에 머무르기가 힘들었던 것은 가출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주요 배경으로 원가족의 해체, 가정에서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학대, 가정의 빈곤, 이로 인한 가출 등이 확인되었다(김재경, 조운오, 2016; 변정애, 2004; 백혜정, 방은령, 2009; 정미래, 2010; Wilson & Butler, 2014). 한편, 안정적인 지지 자원이 되지 못하는 가정환경은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구태희, 송다영, 2012; Hounmenou, 2016),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성매매를 통

해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했으며, 특히 탈성매매 이후 자활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비난과 거부하는 자활에 대한 의지를 무너뜨리고 성매매업소로 재진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족 문제는 연구참여자들의 성매매 진입 및 지속 요인이 되면서도, 동시에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지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A, B, D는 원가족 혹은 새로운 가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회복 지향을 위한 애도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원가족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참여자 C와 E의 애도 과정에서는 가족의 지지적 역할이 부재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유무는 상실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담을 실시할 때 가족에 대한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지지 자원을 획득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므로, 상실의 공유 및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치료적 환경에서 가족들은 상실을 경험한 이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상실의 주제를 꺼낼 수 있도록 애도 과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애도 과정이기도 한 상실 경험에 대한 훈습을 이행함으로써 정서적 적응력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illai-Friedman & Ashline, 2014; Pomeroy & Garcia, 2008/2019; Worden, 2008).

둘째, 성매매경험여성들이 보고한 다양한

상실 유형들은 그만큼의 다양한 애도 과정이 수반됨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그만큼의 애도 과정의 복잡성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상실을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애도 작업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때, 이들을 위한 애도 상담시 다양한 상실의 인식은 첫 개입 과제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상실, 기본적 권리의 상실 등은 인식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 등의 상실은 보다 추상적이어서 자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Freeman, 2005/2019). 때문에 자신들에게 발생한 상실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면서 애도의 부재를 경험할 수도 있다. Bowlby(1982)는 의식적인 애도의 부재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리학적 문제의 발생, 예를 들면 두통이나 신체 통증, 불면증이나 우울 증상 등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하면, 애도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증상과 행동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것이 상실과 관련 있다는 점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Freeman, 2005/2019).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다양한 신체적 상실에 대해 보고하는 어려움은 없었으나, 보다 추상적인 상실에 해당되어지는 관계 상실, 심리적 상실 등에 대한 보고는 어려워하였고, 상실 유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후에야 자신들의 상실을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먼저 상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상실 경험을 명료화하는 개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식된 상실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의도적 반추의 과정을 통해 상실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 감으로

써 심리적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조선화, 강영신, 2015; 최선재, 안현의, 2013).

셋째, 성매매경험여성들에게서 보고된 상실과 애도 과정의 가장 독특한 양상은 상실에 대한 낙인 및 그로 인해 애도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Doka(1999)는 이러한 과정을 박탈된 애도(혹은 빼앗긴 슬픔)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무효화된 상실’과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실’로 설명될 수 있다(Worden, 2008). 애도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지지망이 없는 경우이다(Lazare, 1979). 성매매경험에 대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구분 짓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이며, 위계나 위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해서만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는 현행법 역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피해를 무효화시키거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정미래, 2010), 자발적인 성매매 참여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킨다. 참여자들은 타인들이 성매매경험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즉 성매매경험여성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며 차별하는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사회적 낙인을 자신들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성매매를 경험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 수치심과 같은 자기낙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낙인의 영향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성매매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상실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중시키면서 상실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낙인은 그 자체로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에(이인옥, 이은옥, 2006) 애도 과정을 박탈시키고,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는 이들이 사회적 지지 자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켰을 수 있다 (Gökler et al., 2017; Oexle et al., 2018; Pomeroy & Garcia, 2008/2019). 따라서 낙인으로 인해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상실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고, 공개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Doka, 1999). 특히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이나 개인상담,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 경험을 담은 서적의 독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담아내는 자서전 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상실 경험에 대해 반복적인 자기노출을 시도하며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진로와 관련해 목표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참여자들의 경우, 자조모임이나 개인상담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문학적 자원의 활용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정리하게 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작업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치료적 활동이 될 수 있다(Freeman, 2005/2019). 특히 참여자들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상실 경험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이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자기노출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상실 경험을 노출시키는 것은 결국 외상을 상기시키는 자극들에 둔감하게 만들며, 침습적 사고와 같은 역기능적 사고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삶 속으로 상실을 일관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한다(조선화, 강영신, 2015; 송수지, 강영신, 2017). 따라서 상담자는 안전한 자기노출 환경을 조성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e.g., 문학, 음악, 공예 등)하여 상실

경험을 표현하고 노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애도 상담에 중요한 개입 요소라고 할 수 있다(Freeman, 2005/2019). 더불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통해 상실에 대해 공감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이었으므로, 성매매경험여성들의 박탈된 애도에 대한 상담적 개입은 개별적 개입뿐 아니라 집단적 접근을 동시에 활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을 통해 참여자들이 경험한 애도 과정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Stroebe와 Schut(1999)는 이중과정모형(dual process model)을 통해 ‘상실 지향’ 애도 과정과 ‘회복 지향’ 애도 과정에 따른 상실 이후의 일반적인 심리적 적응 과정을 설명하였다. ‘상실 지향’ 애도 과정은 주로 상실에 대한 반추와 상실에 대한 지속적 갈망과 같은 상실에 초점을 둔 애도 작업이 이루어지며, ‘회복 지향’ 애도 과정은 상실 이후의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두는 애도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애도 과정은 단계의 순서가 존재하는 단계적 모형은 아니며, 상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애도 과정이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Stroebe와 Schut(1999)의 이중과정모형에 따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현재의 애도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자 A, B, D는 상실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면서 ‘상실 지향’의 애도 과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재에는 새로운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회복 지향’의 애도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애도 과정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참여자

A, B, D가 ‘애도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한편, 참여자 C와 E는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상실의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실 지향’ 중심의 애도 과정을 경험하는 이들의 개입에 있어 중요한 점은 ‘상실 지향’ 중심의 애도 과정에서 벗어나 ‘회복 지향’의 애도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는 참여자들이 보고한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사회적 지지, 경험 공유, 목표 형성)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한편,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자기노출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이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노출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경험 공유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요인이지만은 않음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E는 자조모임에서의 경험 공유를 통해 과도하게 상실을 재경험하면서 애도 과정이 방해받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 낙인 혹은 자기낙인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과 시도를 해도 공감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재트라우마를 경험함으로써 애도 과정이 더 방해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자 E의 자조모임 경험은 1개월로 다른 참여자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짧기도 했지만, 잘 준비되지 못한 경험 공유일 경우에는 재트라우마 경험이라는 반치료적인 경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것이 성매매여성의 애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애도 상담시 ‘경험의 공유’와 ‘공감’은 중요한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트라우마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개인 상담을 병행하거나, 집단 참여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뒤 집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Pomeroy & Garcia, 2008/2019).

위에서 논의한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대표적인 낙인 집단으로서 성매매경험여성은 관심을 끌거나 쉽게 접근성이 있는 연구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는 성매매경험여성에 관한 심리학 분야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매매경험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경험을 연구 자료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 경험과 애도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손상이나 피해를 상실의 개념으로 통합해 확인함으로써 성매매경험여성들의 다양한 상실에 따른 심리적 과정인 애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동성애자, 자살생존자 등을 대상으로 박탈된 애도와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국외에서도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박탈된 애도의 연구는 시도된 바가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는 박탈된 애도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가 성매매경험여성의 박탈된 애도 과정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상실을 유발시키는 성매매의 폭력

적 환경에 대해 그 경험을 자세하게 탐색하고 기술함으로써,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은 물론, 상실이 유발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넷째, 성매매경험여성들의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국내의 첫 번째 연구로서, 성매매경험여성의 낙인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외에서 주목하지 않은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 경험과 박탈된 애도에 초점을 둔 연구이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도 연구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초점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론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상실에서 비롯된 고통의 수준은 애도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별로 각 상실 유형의 고통 수준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를 활용해 상실의 고통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애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수의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특성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의 성매매경험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매매경험여성의 상실 경험과 박탈된 애도에 대한 보다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차별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태희, 송다영 (2012). 성매매여성의 가족경험과 탈성매매 과정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1), 106-139.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간호학회, 29(6), 1208-1220.

김수지 (2013). 성매매 여성의 외상 경험과 이성 관계 집착.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4), 1632-1643.

김영숙, 이근무 (2008).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3), 5-30.

김자영, 양정빈 (2013).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3(3), 130-160.

김재경, 조윤오 (2016).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239-260.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 (2016).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9.

변정애 (2004). 성매매의 고착기제 연구: 탈성매매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수지, 강영신 (2017). 관계상실을 경험한 청소년 대상 TF-CBT 기반 애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357-382.

안혜영, 오수성, 한규석 (2012). 시설기관을 이용 중인 탈성매매 여성의 외상 관련 증상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 한국임상심

- 리학회지: 임상, 31(1), 271-288.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나경 (2010). 성매매 여성의 아동기 확대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stigma)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13(1), 53-66.
- 이지민, 홍창희 (2008).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53-580.
- 이혜지, 강영신 (2020). 청소년기에 어머니와 사별한 한국 성인 여성의 애도 과정과 심리적 성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1), 57-90.
- 장승진 (2013). 성매매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례 (2010).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탈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 강영신 (2015). 애도 회피에 따른 침투적 반추가 심리적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 및 자기노출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41-663.
- 최선재, 안현의 (2013).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 과정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323-34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 Beck, C. T., Kedy, B. A., & Cohen, M. Z. (1994). Reliability and validity issue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6(3), 254-267.
- Bowlby, J. (1982).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 3). New York: Basic Books.
- Burnett, P., Middleton, W., Raphael, B., & Martinek, N. (1997). Measuring core bereavement phenomena. *Psychological Medicine*, 27(1), 49-57.
- Burnette, M. L., Lucas, E., Ilgen, M., Frayne, S. M., Mayo, J., & Weitlauf, J. C. (2008). Prevalence and health correlates of prostitution among patients entering treatment for substance use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5(3), 337-344.
- Carlson, C. E., & Blackwell, B. (1978). *Behavioral Concepts and Nursing Intervention*(2nd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Cohan, D. L., Kim, A., Ruiz, J., Morrow, S., Reardon, J., Lynch, M., Klausner, J. D., Molitor, F., Allen, B., Green B., Ajufo, Ferrero, D., Bell Sanford, G., Page-Shafer, K., Delgado, V., McFarland, W., & Ferrero, D. (2005). Health indicators among low income women who report a history of sex work: the population based Northern California Young Women's Survey.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81(5), 428-433.
- Corr, C. A. (1999). Enhancing the concept of disenfranchised grief.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38(1), 1-20.
- Crawford, M., & Kaufman, M. R. (2008). Sex trafficking in Nepal: Survivor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outcomes. *Violence Against Women*, 14(8), 905-916.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에 출판)
- Curtin, N., & Garrison, M. (2018). "She was more than a friend": Clinical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ffectively addressing disenfranchised grief issues for same-sex couples.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30(3), 261-281.
- Denzin, N. K. (1970). Problems in analyzing elements of mass culture: notes on the popular song and other artistic produ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5(6), 1035-1038.
- Doka, K. J. (1999). Disenfranchised grief. *Bereavement Care*, 18(3), 37-39.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Farley, M. (2004). Prostitution and the invisibility of harm. *Women & Therapy*, 26(3-4), 247-280.
- Farley, M., Cotton, A., Lynne, J., Zumbek, S., Spiwak, F., Reyes, M. E., Dinorah, A & Sezgin, U. (2004).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ine countries: An update on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 Practice*, 2(3-4), 33-74.
- Feigelman, W., Gorman, B. S., & Jordan, J. R. (2009). Stigmatization and suicide bereavement. *Death Studies*, 33(7), 591-608.
- Freed, W. (2004). From duty to despair: Brothel prostitution in Cambodia. *Journal of Trauma Practice*, 2(3-4), 133-146.
- Freeman, S. J. (2019). 애도상담 (이동훈, 강영신 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원전은 2005년에 출판)
- Gilchrist, G., Gruer, L., & Atkinson, J. (2005). Comparison of drug use and psychiatric morbidity between prostitute and non-prostitute female drug users in Glasgow, Scotland. *Addictive Behaviors*, 30(5), 1019-1023.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85에 출판)
- Gökler, D. I., Yalçınay I. M., & Yiğit, İ. (2017). Experience of grief by patients with cancer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illness: The mediating roles of identity centrality, stigma-induced discrimination, and hopefulness.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35(6), 776-796.
- Habarth, J., Bussolari, C., Gomez, R., Carmack, B. J., Ronen, R., Field, N. P., & Packman, W. (2017). Continuing bond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a recently bereaved pet loss sample. *Anthrozoöy*, 30(4), 651-670.
- Hallgrímsdóttir, H. K., Phillips, R., Benoit, C., & Walby, K. (2008). Sporting girls, streetwalkers, and inmates of houses of ill repute: Media narratives and the historical mutability of prostitution stigmas. *Sociological Perspectives*, 51(1), 119-138.
- Hong, Y., Fang, X., Li, X., Liu, Y., Li, M., & Tai-Seale, T. (2010). Self-perceived stigma,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behaviors among female sex workers in China.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1(1), 29-34.
- Hong, Y., Li, X., Fang, X., & Zhao, R. (2007).

-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female sex workers in Chin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8(5), 490-505.
- Houck, J. A. (2007). A comparison of grief reactions in cancer, HIV/AIDS, and suicide bereavement. *Journal of HIV/AIDS & Social Services*, 6(3), 97-112.
- Hounmenou, C. (2016). Exploring child prostitution in a major city in the West African region. *Child Abuse & Neglect*, 59, 26-35.
- Jackson, L. A., Bennett, C. G., & Sowinski, B. A. (2007). Stress in the sex trade and beyond: Women working in the sex trade talk about the emotional stressors in their working and home lives. *Critical Public Health*, 17(3), 257-271.
- Keshet, H., & Gilboa-Schechtman, E. (2017). Symptoms and beyond: Self-concept among sexually assaulted wome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9(5), 545-552.
- Lazare, A. (1979). Unresolved grief. In A. Lazare(Ed.), *Outpatient psychiatry: Diagnosis and treatment* (pp. 498-512).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roductions.
- Mitchell, M. B. (2018). “No One Acknowledged My Loss and Hurt”: Non-death Loss, Grief, and Trauma in Foster Car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5(1), 1-9.
- Oxle, N., Feigelman, W., & Sheehan, L. (2018). Perceived suicide stigma, secrecy about suicide loss and mental health outcomes. *Death Studies*, 44(4), 248-255.
- Pillai-Friedman, S., & Ashline, J. L. (2014). Women, breast cancer survivorship, sexual losses, and disenfranchised grief - a treatment model for clinician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29(4), 436-453.
- Polkinghorne, D. (2001). 사회과학 방법론 (김승현, 이경숙, 심미선, 황치성 역). 서울: 일신사. (원전은 1984년에 출판)
- Pomeroy, E. C., & Garcia, R. B. (2019). 애도상담의 실제 (강영신, 이동훈 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Ross, C. A., Farley, M., & Schwartz, H. L. (2004). Dissociation among women in prostitution. *Journal of Trauma Practice*, 2(3-4), 199-212.
- Roxburgh, A., Degenhardt, L., & Copeland, J. (200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female street-based sex workers in the greater Sydney area, Australia. *BMC Psychiatry*, 6(1), 24-35.
- Rycroft, F., & Perlesz, A. (2001). Speaking the unspeakable: Reclaiming grief and loss in family lif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57-65.
- Sallmann, J. (2010). Living with stigma: Women’s experiences of prostitution and substance use. *Affilia*, 25(2), 146-159.
- Seidman, I.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혜준,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6년에 출판)
- Sofka, C, J, (1996).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aninno (Ed.), *Grieving days, healing days*. Boston, MA: Allyn & Bacon.

- Stroebe, M., &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 Vijayakumar, G., Chacko, S., & Panchanadeswaran, S. (2015). 'As human beings and as workers': Sex worker Unionization in Karnataka, India. *Global Labour Journal*, 6(1), 79-96.
- Williamson, C. (2005). Violence against women in street level prostitution: Women centered community responses. *Advancing Women in Leadership*, 18, 1-5.
- Wilson, B., & Butler, L. D. (2014). Running a gauntlet: A review of victimization and violence in the pre-entry, post-entry, and peri-/post-exit period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5), 494-504.
- Worden, W. (200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4th ed.). New York: Springer.
- Young, A. M., Boyd, C., & Hubbell, A. (2000). Prostitution, drug use, and coping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Drug Issues*, 30(4), 789-800.
- 원 고 접 수 일 : 2021. 04. 13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6. 10
계 재 결 정 일 : 2021. 08. 03

Losses and Disenfranchised Grief of Post-Prostitute Women: A Phenomenological Study

Hyo-Gyung Koh¹⁾ Ju-Young Park²⁾ Young-Shin Kang³⁾

¹⁾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Master's Degree

²⁾Gwa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therapy / Assistant professor

³⁾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ost-prostitute women's losses and grief process as a result of their prostitution experience. This necessitated the use of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better understand individuals' internal experiences. In-depth interviews with 5 participants were conducted,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80 core meanings, 28 themes, and 7 categories were derived. Seven categories are as follows: 'initiation and continuation factors of prostitution', 'harassment and abuse from various prostitution industries', 'type of losses', 'grief process for the identified losses', 'the process of disenfranchised grief', 'the factors that help the grieving process', 'the factors that hinder the grieving process'. Through the findings, the circumstances of the losses, the types of identified losse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grief process were identified. Post-prostitute women's losses were not recognized and validated due to social and self-stigma.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ost-prostitute women, loss, stigma, disenfranchised grief, Giorgi's phenomenological study